

# 불법(佛法) 기초

## 신행학(信行學)

어떤 종교는 주로 신(信)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종교는 수행이나 타인에 대한 친절함을 강조한다. 철학적인 질문을 하도록 권장하는 종교도 있지만, 그러한 구도는 종교 전문가나 성직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하는 종교도 있다. 니치렌 불법(佛法)에서는 모든 사람이 ‘신(信), 행(行), 학(學)’의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수행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니치렌 대성인은, “행학(行學)의 이도(二道)를 힘쓸지어다. 행학(行學)이 끊어지면 불법(佛法)은 없느니라. 나도 행(行)하고 남도 교화(教化)하시라. 행학(行學)은 신심(信心)에서 일어나는 것이로다.” (제법실상초, 어서 1361쪽) 라고 말씀하셨다.

## 신(信)

불법에서 말하는 신(信)이란, 자신은 물론 일체중생에게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삶을 건설하기 위한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우주와 우리의 삶에 편만해 있는 근본법인 묘법, 즉 남묘호렌게교를 부르는 수행으로 표현된다.

니치렌 대성인은 자신의 가르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대승리로 이겨내셨다. 대성인은 자신의 승리한 생명상태의 표현으로 어본존을 도현하여 후세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 상태를 용현해 낼 수 있도록 하셨다. “니치렌의 혼을 먹물에 물들여 넣어서 썼으니 믿으실지어다.” (어서 1124쪽)라는 어서 말씀대로이다.

니치렌 불법의 수행의 기본은 어본존을 향해 남묘호렌게교를 부르면 누구나 자신 안에 내재한 불성을 용현해 낼 수 있다고 깊이 믿는 것이다. 강성한 신심으로 어본존에게 제목을 올리면 묘법에 감응한 생명에서 지혜와 용기와 자비가 용현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대성인은 절대로 자신의 생명이 아닌 외부에서 어본존이나 성불을 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제법실상초, 일생성불초 참조). 그러므로 어본존을 믿는 신심이란 우리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의 생명에 내재하고 있는 엄청난 힘과 존엄성을 믿는 것이다. 불도수행과 교학은 신심을 강성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이다.

신심이 강해지면, 행(行)과 학(學)이 강성해지고 그 결과로 더 많은 공덕과 성장이 뒤따르는 것이다.

## 행(行) = 자행화타(自行化他)

신(信)은 종종 불법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단순한 기대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대는 지속적인 불도수행에 의해 확신으로 발전한다. 니치렌 불법의 불도수행은 자행(自行)과 화타(化他)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수레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레의 양쪽 바퀴로 비유할 수 있다.

자행(自行)은 우리가 매일 제목을 부르고 근행을 하는 신심 수행을 말한다. 이 수행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높은 생명 경애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 화타(化他)는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남묘호렌게교를 알리고 그들이 자신의 불도수행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과 인간주의 철학을 널리 유포하는 SGI의 활동 역시 화타(化他)행의 일부분이다.

대성인은, “모름지기 마음을 하나로 하여 남묘호렌게교라고 나도 부르고 타인에게도 권하는 일만이 금생 인계의 추억이 되느니라.” (지묘법화문답초, 어서 467쪽)라고 말씀하셨다. 제목을 불러서 만드는 행복은 생사(生死)를 초월해 영원하다.

우리는 제목을 부르고 타인에게 신심을 알려감으로써 절대적 행복 경애를 방해하는 모든 부정적인 속업을 타파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불도수행을 해간다면 계속해서 강성하게 자신을 단련하여 더욱 환희에 차고 보람있는 삶을 구축해 갈 수 있다.

## 학(學)

니치렌 불법에서 말하는 학(學)이란 불법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대성인의 가르침인 어서를 공부하는 것이다. 대성인 불법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깊게 함으로써 자신감과 확신을 깊게 하여 올바른 신심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 니치렌 대성인은, “행학(行學)은 신심(信心)에서 일어나는 것이로다. 힘이 있는 한 일문일구(一文一句)라도 설(說)할지니라.” (제법실상초, 어서 1361쪽)라고 말씀하셨다. 끊임없이 교학을 공부하고 올바른 불법의 가르침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의 의견이나 타인의 잘못된 해석에서 오는 얕은 교학적 견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얕은 교학적 견해에 현혹되면 자신의 불성을 전부 용현할 수도 불도수행의 진정한 공덕을 맛볼 수도 없게 된다. 우리가 창가학회

3대 회장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도다 조세이,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의 지도와 본보기를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대 회장은 대성인의 가르침을 현대에 완벽히 적용하여 증명하신 분들이다.

2대 도다 회장은, “학(學)을 통해 얻은 이해는 신(信)을 갖게 하고 신(信)은 이해를 구하며, 구한 이해는 신(信)을 더욱 깊게 한다. 이렇게 깊어진 신(信)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行)의 이해를 깊게 한다.” 고 말했다. 즉, 니치렌 불법의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강성한 신심을 확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신심이 깊어지면 대성인 불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구도심이 생기게 된다.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불법을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라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다. 교학을 통해 신심이 강성해지면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기회로 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 이케다 SGI회장은 교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교학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위험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여행자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위대한 철학을 가르쳐준다. 교학의 기초가 단단해질수록 신심은 더욱더 성장한다.” (2005년 12월 9일 자, 월드 트리뷴, 2면)

대성인 불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의구심을 없애고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행복 경애를 구축해 갈 수 있다.